삼정 KPMG

2026년 글로벌 건설산업 동향 조사

Global Construction Survey

April 2026

—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불확실성 시대,
건설 기업의 경쟁력은 실행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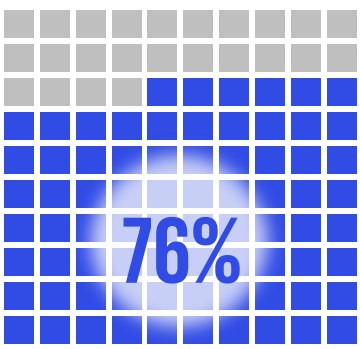
KPMG Global이 전 세계 인프라·건설 조직 고위 경영진 375명 대상 조사 결과,
건설산업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역설적 양상 나타남

66%
건설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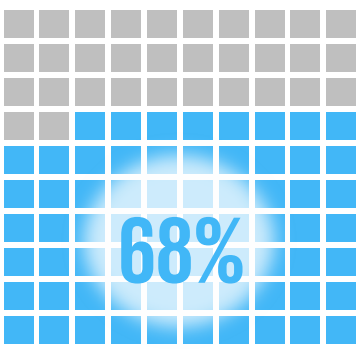
71%
12개월 전 대비 리스크 회피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응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는 필수 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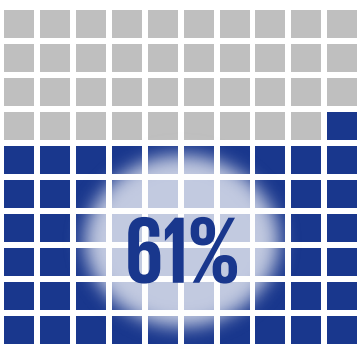
건설 기업들이 강화하고 있는 핵심 요소



인력(Workforce)을 핵심 전략 실행 기반으로 인식



기술(Technology)을 전략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



수행 모델(Delivery models)을 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소로 인식

통합 실행 역량이 향후 건설 기업 경쟁력을 결정

01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복잡성과 규제 강화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리스크 관리는 운영 규율, 디지털 역량, 애자일 방식, 지속가능성 통합에 기반함

02 사람 + 기술 = 성장의 핵심

- 인력과 기술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 효율성, 수익성,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의 통합 전환에 달려 있음

03 적응형 실행이 생존 조건

- 지속가능한 운영과 사업 방식 개선이 투자, 인재, 시장 접근에 유리하게 작용함
- 사업 방식 고도화와 사람·기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음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Global Construction Survey 2026"의 한글 요약본입니다.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1

기대는 커지고 실행은 느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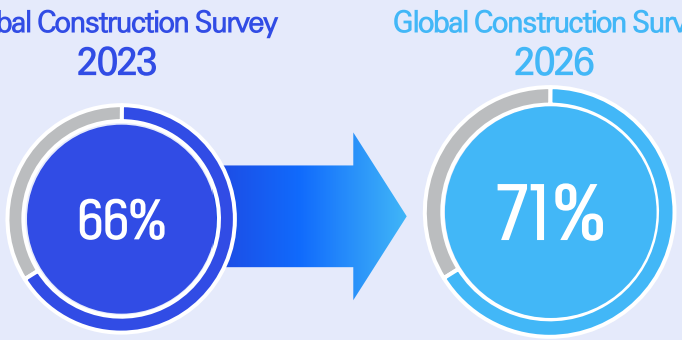
건설산업의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도 리스크 회피 기조가 강화

- 건설산업에 대한 낙관 비율이 66%에서 71%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성장 기대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역설적이게도 기업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성장 기대와 실제 실행 사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산업 전반의 실행 속도 저하되는 모습 나타남

확대되는 기대와 깊어지는 관망

낙관적인 기대 증가

건설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리스크 회피 기조 강화

응답자 4명 중 3명(75%)이
'12개월 전보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같거나 더 커졌다' 응답

본 설문조사는 EMEA(34%)·APAC(33%)·북미(23%)·남미(10%) 지역의 건설사(E&C 기업)·프로젝트 발주자·인프라·건설 조직의 고위 경영진 및 의사결정자로 구성된 글로벌 건설산업 리더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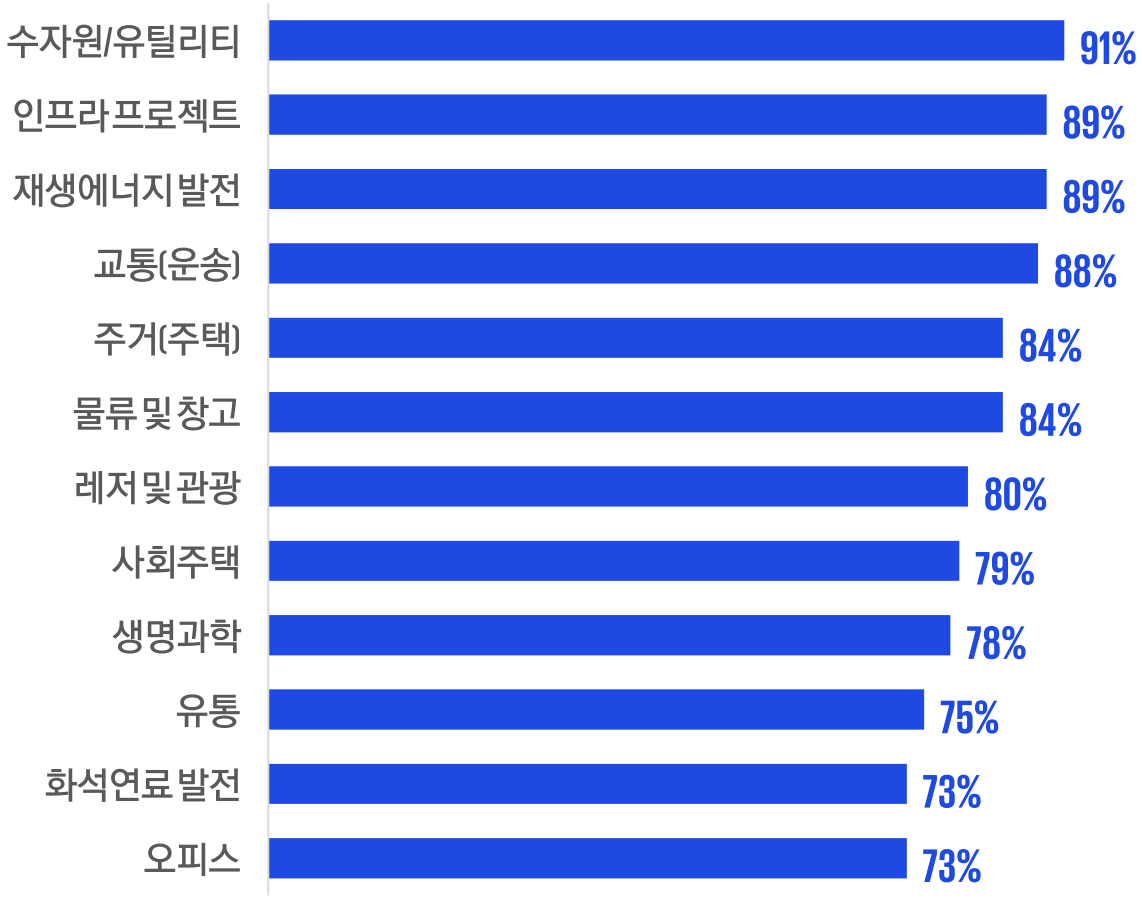
전반적 수요 확대 속 인프라·에너지 분야 상대적 강세

건설 시장은 전반적 성장 국면 속, 인프라·에너지가 두드러진 성장 축으로 부상

- 대부분 건설 세그먼트에서 높은 수요 증가 응답률(70~90%)을 보이며, 전반적인 업황 개선 흐름 확인
- 유틸리티, 인프라, 재생에너지 분야는 타 분야 대비 높은 응답률로 상위 성장군 형성
- 정부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정책, 디지털 인프라 확산이 해당 분야의 성장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향후 12~24개월 동안 건설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는 ?

"대부분 분야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인프라·에너지 관련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



Note: 중복 응답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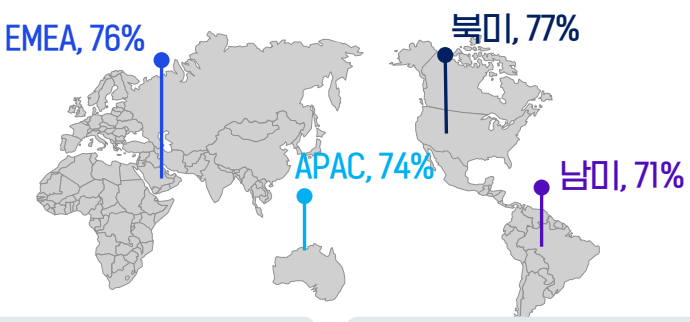
전 세계 성장 흐름 속 지역별 대응 전략 중요

전 지역에서 성장 기대 존재, 시장 구조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북미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성장 기대를 보이며 시장 회복을 견인
- 아시아·태평양은 지속가능성과 대형 인프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
- 중국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내 타 국가들이 이를 보완하며 성장세 흐름을 유지

글로벌 건설 시장 낙관 전망 및 지역별 특성 비교

지역별 건설산업에 대한 낙관 전망



유럽·중동·아프리카 (EMEA)

- 그린에너지 및 수자원 분야가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
- 지속가능성 규제가 시장 전반에 계속 강화되는 추세
-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성장 구조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북미 (North America)

- 인프라 개선과 유틸리티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정부의 경기 부양 투자로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음
- 다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 속도가 다소 느린 편

아시아·태평양 (APAC)

- 그린에너지·수자원·교통·대형 인프라 전반에서 균형 있는 성장 기대
- 지속적인 도시화와 정부 주도 개발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평가

남미 (South America)

-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 기대감 유지
- 인프라 프로젝트 및 수자원·유틸리티 분야 중심으로 강세
- 교통 및 주거 개발 수요도 안정적으로 증가

Note: APAC – 호주, 중국, 홍콩(SAR),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EMEA – 유럽(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UAE, 터키), 아프리카(케냐)
북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 – 아르헨티나, 브라질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4

낙관적 전망 속에서도 여전히 상존하는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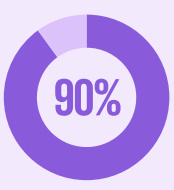
비용, 공급망, 프로젝트 복잡성 요인이 결합되며 리스크가 지속 확대

- 프로젝트 규모 확대와 복잡성 증가로 인해 실행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기술 투자 비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비용 압박 심화되고 있음
- 그 외에도 공급망 불안정성과 규제 환경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불확실성 확대되는 상황

건설산업 리스크 요인 및 주요 압박 요인

01 시장 요인 (Market fo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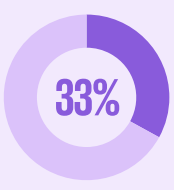
- 투자 패턴 변화와 경쟁 심화, 프로젝트 규모 및 복잡성 증가로 리스크 경계 확대
- 이러한 변화들이 프로젝트 수행 전반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응답자 中 90%가 고객들이 현재보다 더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

02 비용과 투자 균형 (Balancing costs and inves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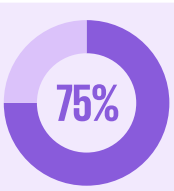
- 자재 비용 상승과 자금 조달 제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 존재
- 경쟁력 유지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지속적 투자 필요



자재/장비 비용 상승과 자금 조달의 제약을 가장 큰 해결 과제로 인식

03 공급망 및 규제 압박 (Supply chain and regulatory pressures)

- 공급망 취약성과 관세 상승으로 비용 부담과 운영 리스크 증가
- 규제 및 지속가능성 요구 확대에 따라 근로, 토지, 건축 관련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응답

⚠ **최근 강화되는 탄소·ESG 규제에 따른 자재 비용 상승 압력**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자재에 탄소 비용이 반영되며 조달 단가 상승 압력 확대
- ESG 공시 의무화로 친환경 자재 및 공급망 기준이 강화되며 조달 구조 변화 및 비용 부담 증가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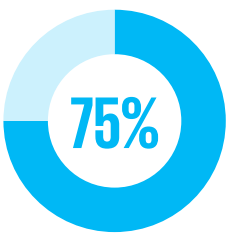
05

리스크 확대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 가속

리스크 회피 기조 속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는 필수 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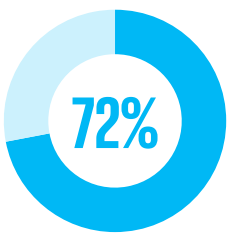
-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며, 비용 통제와 생산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시장 확장과 고객 중심 전략을 통해 신규 성장 기회를 모색하며, 차별화된 가치 제안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해지고 있음
- 기술 혁신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

향후 12개월 동안 자사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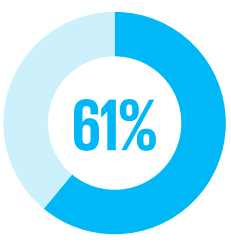
운영 효율성 및 수익성
(Operational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생산성 향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확보 추진 중이나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부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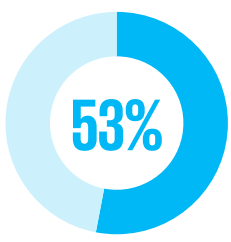
시장 확장 및 고객 중심 전략
(Market expansion and client focus)

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신규 시장 진출 확대와 고객 중심 전략을 통해 수익성 높은 성장 기회 발굴 중



기술 및 혁신
(Technology and innovation)

생산성 향상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확보 추진 중이나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부담 존재



리스크 및 회복탄력성 관리
(Risk and resilience management)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리스크 분산을 통해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추진 중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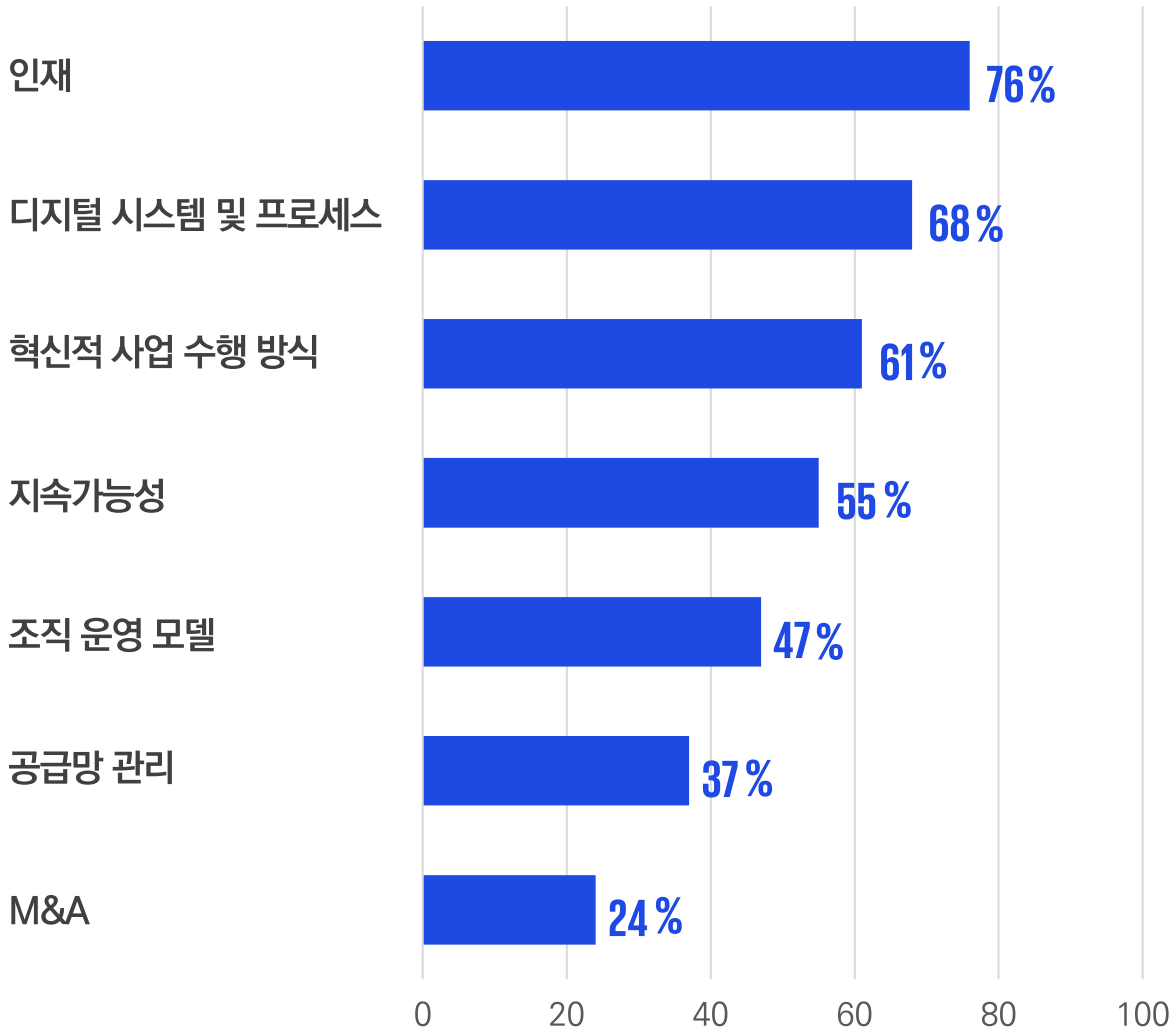
06

전략 우선순위는 인재·디지털·실행 중심으로 재편

기업 경쟁력은 핵심 동력 강화 여부에 따라 격차 확대

- 인재 확보와 역량이 기술 도입 성과를 좌우하며, 산업 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디지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통합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
- 수행 모델 혁신이 속도·생산성·예측 가능성을 결정하며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기업들이 강화하고 있는 핵심 실행 요소



Note: 중복 응답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7

분절이 아닌 통합, 성과의 핵심 조건

사람·기술·모델 통합이 전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

-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
- 기술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견인
- 사업 수행 방식 변화로 통합 필요성이 확대되며,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인력·사업 수행 방식을 연계하는 접근이 중요

성과 창출을 위한 3대 핵심 요소 통합 체계

인력 (People)

디지털 역량과 도구를 통해 인력의 생산성을 강화

– 응답자의 82%가 교육 및 훈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힘

기술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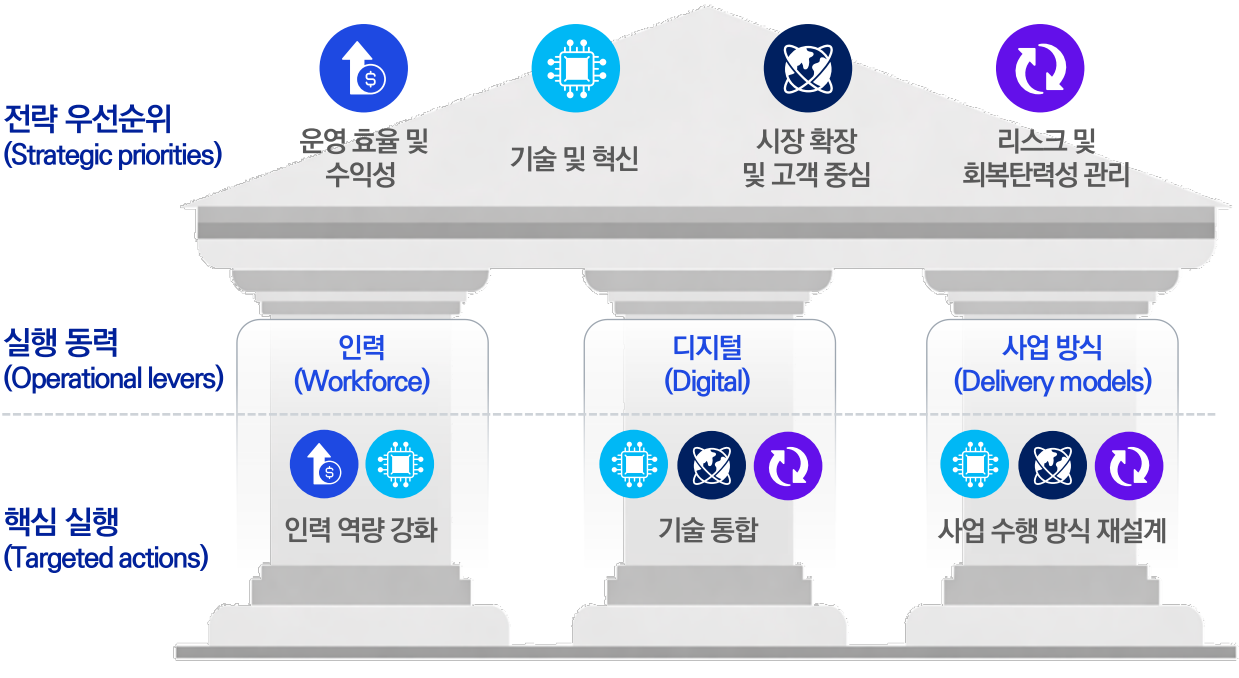
효율성,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전사적으로 통합

– 투자 중 51%는 기술·데이터·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기술 혁신 분야에 집중

사업 수행 방식 (Delivery models)

인력, 디지털, 지속가능성, 공급망을 연결하여 가치 창출

– 협업, 공급망 디지털화, 오프사이트 건설(Off-site Construction)[1]이 향후 5년 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



Note: 1) 오프사이트 건설(Off-site Construction)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방식을 의미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8

건설산업 프로세스 전 과정 재설계 필요

전 생애주기 디지털 통합이 운영 효율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자동화, 모듈러 건설,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실시간 데이터와 분석 기반 의사결정이 운영 효율성과 프로젝트 성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 수행하고 있음**

건설산업 전 생애주기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필요

기획부터 운영까지,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우선(Digital-first)' 접근이 필요

1 기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
- 디지털 트윈 및 모듈형 설계를 통해 비용 효율적·지속가능한 인프라 계획 수립
-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건축가·엔지니어·규제기관 간 실시간 협업

2 조달 (Procurement)
-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성과 기반 조달 모델 도입
- 모듈화 및 저탄소 전략 반영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3 건설 및 실행 (Construction and Execution)
- 모듈러 건설 및 프리패브 공법[1]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 로봇 및 연결 기술 도입으로 인력 의존도 감소 및 현장 자동화

4 시운전 및 인수인계 (Commissioning and Handover)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운전 단계 자산 성능 검증
- 데이터 통합 및 인사이트 제공으로 운영팀 디지털 전환 지원

5 물류 및 공급망 (Logistics and Supply Chain)
- IoT 기반 추적과 AI(인공지능) 경로 최적화를 통한 디지털 관제
- 배출량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6 운영 및 유지관리 (Operations and Maintenance)
- IoT 및 예측 분석으로 자산 상태 모니터링 및 효율성 향상
- 협업 기반 유지관리 전략 적용

Note: 1) 프리패브 공법(Prefabrication)은 건물 일부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09

지속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변화·사람·기술·실행

환경 변화 대응과 실행력까지 통합적으로 갖춰야 지속 성장 가능

- 기술과 인력 역량이 미래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건설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운영 효율성과 디지털 전환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단독 실행 시 효과가 제한적
- 새로운 사업 수행 방식은 시장 경쟁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는 해외 수주 전략 재정립과 국내 부동산 경기 변동성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건설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01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산업 환경 변화와 규제 강화로 전통 방식의 한계가 확대되며 지속적 변화가 요구됨
- 기술 중심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과 사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실행력 확보 필요

02 사람 + 기술 = 성장의 핵심

- 인재와 기술 역량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유기적 결합을 통해 경쟁우위 확보 가능
-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력과 기술의 통합 운영이 성과 창출의 핵심

03 적응형 실행이 생존의 조건

- 전략 수립을 넘어 실제 실행과 성과 창출 여부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
- 실행 지연 시 시장 경쟁력 약화와 성과 창출 기회 상실 리스크 확대

국내 건설사 주요 대응 과제

- ☑ 해외 수주 환경 변화로 전략 재편 필요, 선별적 수주 및 리스크 관리 중요성 확대
- ☑ 국내 부동산 경기 변동성으로 내수 사업 안정성 확보 필요
- ☑ 국내외 시장 연계 강화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복합 대응 필요

삼정 KPMG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삼정 KPMG

Business Contacts

건설&인프라산업

Audit

황재남 부대표
jaenamhwang@kr.kpmg.com

박상옥 전무
sangokpark@kr.kpmg.com

이주영 전무
jooyounglee@kr.kpmg.com

김철영 상무
chulyoungkim@kr.kpmg.com

한정우 상무
jungwoohan@kr.kpmg.com

엄준식 상무
junsikuhm@kr.kpmg.com

이덕영 상무
deokyeonglee@kr.kpmg.com

범승형 상무
sbeom@kr.kpmg.com

박민용 상무
minyongpark@kr.kpmg.com

Deal Advisory

김효진 부대표
hkim68@kr.kpmg.com

홍민성 전무
minsunghong@kr.kpmg.com

정유철 상무
yuchuljeong@kr.kpmg.com

삼정 KPMG

Authors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이사
dohwipark@kr.kpmg.com

이종민 선임연구원
jlee547@kr.kpmg.com

home.kpmg/kr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